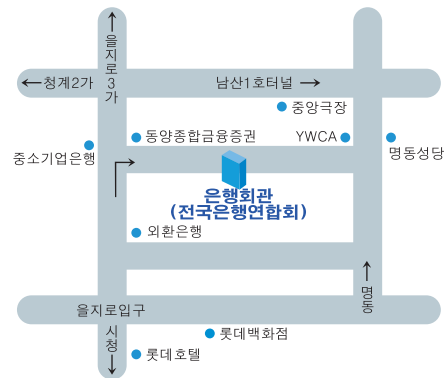


2010년 한국경제학회 정책세미나

##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정부부채

찾아오시는 길 ■ ■ ■ ■ ■



- 주 소: 서울 중구 명동 1가 4-1 은행회관
- 교통편: 지하철 2호선 을지로 입구역 하차 5번 출구  
지하철 4호선 명동역 하차 4, 7번 출구
- 행사 당일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EA 한국경제학회**  
The Korean Economic Association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156번지  
광화문플래티넘 5층 510호  
Tel. 02-3210-2522, 2523 Fax. 02-3210-2555  
e-mail: kea1952@kea.ne.kr

### 일시

2010년 10월 13일(수) 13:20~16:00

### 장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주최

한국경제학회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 초청의 말씀

근래에 우리나라 정부부채와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가 지닌 주된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부채는 GDP 대비 35% 정도로 OECD 국가 평균의 절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 사업을 대행하는 공기업의 부채까지 포함하면 OECD 국가 평균을 상회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부채는 최근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 급속한 인구고령화 추세, 그리고 북한변수까지 감안할 때 머지않아 '발등에 떨어질 불'이 될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GDP 대비 80%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 65%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와 언론은 가계부채가 이미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정부는 가계대출 연체율이 낮고 주택담보가치 대비 대출금 비율도 50% 이하로 낮아서 가계부채가 아직까지는 문제되지 않으며 미시적 대응수단으로 잘 관리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와 경제위기의 배후에는 오래 부채문제가 있습니다. 부채문제를 실상 이상으로 부풀릴 필요는 없으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정부부채와 가계부채의 실상은 과연 어떠한지, 어떤 평가가 더 현실 적합성을 지니는지, 그리고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는 우리 경제의 중요한 현안입니다.

이에 사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종합적이고 권위 있는 토론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 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년 10월

한국경제학회 회장 안국신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김태준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원장 김경수



## 일정



13:20~13:30

### 개회 및 인사말

안국신 (한국경제학회 회장)

김경수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원장)

13:30~14:40

### 주 제 I: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사 회: 박완규 (중앙대 교수)

발 표: 허석균 (KDI 연구위원)

금융안정성 측면에서 바라본 주택담보대출

토 론 1: 김경환 (서강대 교수)

토 론 2: 장 민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거시경제실장)

토 론 3: 김현정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

토 론 4: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14:40~14:50

### 휴 식

14:50~16:00

### 주 제 II: 우리나라의 정부부채

사 회: 박완규 (중앙대 교수)

발 표: 옥동석 (인천대 교수)

한국의 정부부채, 왜 논란이 거듭되는가?:

펀드단위 vs. 제도단위

토 론 1: 백웅기 (상명대 교수)

토 론 2: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

토 론 3: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

16:00

### 폐 회